

2010년 임원 가족수련회를 다녀와서

친정나들이

“따르릉~~~~”

폭염 속 달려왔던 일상을 뒤로하고 쉬고 있던 내게 걸려온 김승욱 교수님의 전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기학연) 통합 1주년을 기념하며 임원 가족수련회가 있는데, 전직 간사들도 동석한다시며 좋은 곳에 와서 그리운 분들과 교제하며 쉬라는 내용이였다. 반갑고 감사한 마음에 흔쾌히 대답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이후 몰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2000년부터 2003년 중반까지 일을 하고 떠났던 기학연! 나름대로의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떠났건만, 그때의 계획과는 달리 살아온 내 모습을 내보이기엔 자신 없음을 부인할 수 없어 망설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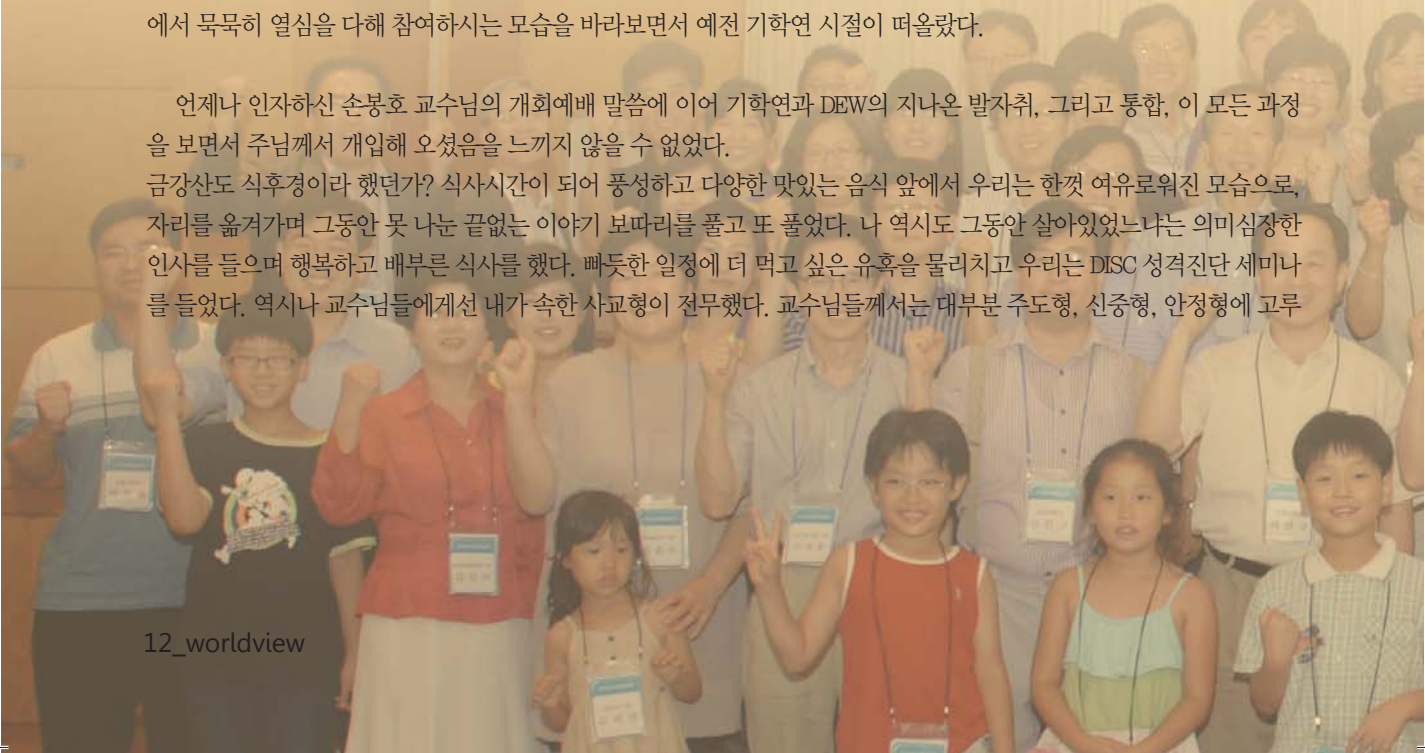
그렇지만 내게 주셨던 은혜와 귀한 분들의 사랑이 그리웠을까? 망설이고 있던 나를, 주님은 그곳으로 인도해주셨다. 화창한 8월 9일 아침, 분당까지 선뜻 태우러 와주신 차 간사님의 차에 몸과 맘을 싣고 우리는 대구로 향했다. 4시간에 가까운 긴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와 삶을 나누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을 정도로 우린 쉽 없이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뒷자리에 앉은 두 아이들은 우리의 대화가 이해되는지, 집중하여 듣기도하고 가끔 대화에 참여도 하다가 자기들끼리 잘 놀아주었다.(고맙다, 애들아^^)

드디어 대구 인터볼고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니, 접수데스크에 보이는 몇몇 간사님들! 그래도 간사님들은 서울서 가끔 뵈었기에 잠깐의 인사만 나누고, 그 뒤로 들어오시는 교수님들을 대할 수 있었다. 그동안 뵈고 싶었던 분들, 명찰에 적힌 이름만 보아도 베풀어주셨던 사랑이 밀려왔다. 그때보다 더 건강해보이시는 분도 계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흰머리가 전보다 많이 비치는 교수님도 계셨다. 그 사이 훌쩍 커버린 교수님들의 자제분들도 세월을 실감케 했고, 전직 간사의 아이를 품에 안고 놀아주시는 모습 속에서 따스한 할아버지의 사랑도 느껴졌다.

그러기도 잠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오신 분들이기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계속되어지는 회의와 세미나. 이 일정 속에서 묵묵히 열심을 다해 참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 기학연 시절이 떠올랐다.

언제나 인자하신 손봉호 교수님의 개회예배 말씀에 이어 기학연과 DEW의 지나온 발자취, 그리고 통합,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 개입해 오셨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식사시간이 되어 풍성하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 앞에서 우리는 한껏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그동안 못 나눈 끝없는 이야기 보파리를 풀고 또 풀었다. 나 역시도 그동안 살아있었느냐는 의미심장한 인사를 들으며 행복하고 배부른 식사를 했다. 뼈뺏한 일정에 더 먹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DISC 성격진단 세미나를 들었다. 역시나 교수님들에게선 내가 속한 사교형이 전무했다. 교수님들께서는 대부분 주도형, 신중형, 안정형에 고루



12_worldview



앉아계셨다. 뭐든 신속정확한 주도형, 발표도 두 분이 나와서 할 만큼 신중했던 신중형, 서로를 배려하며 막바지에 토의 내용을 정리하셨던 안정형……. 서로를 알아가고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더없이 훌륭하고 쾌적했다. 미혼인 나 혼자 쓰는 방이었기에, 더 넓고 좋게 느껴졌던 것이라. 그렇지만 그 방이 주는 유익보다 DEW의 전직 간사이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내 친구 최외숙 간사의 방이 내겐 더한 평안함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수련회 이틀 밤 내내 전, 현직 간사들은 두 아이가 자고 있는 그 좁은 방에서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잊은 채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이미 통합간사가 되어 있었다.

둘째 날, 어제보다 좀 더 화기에애한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나누고(그러나 한쪽 테이블에선 임원진의 회의는 계속되었다.) 대구 기독교유적지와 워터파크 팀으로 나뉘어 가족들 간의 친목을 다졌다. 오후에는 건강전도사라 불릴 만큼 재밌는 박상은 원장님의 건강법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함께 손뼉 치며 즐거웠던 음악콘서트로 이어졌다. 피곤이 점점 몰려올만한 데도 마지막 전광식 교수님의 '세계관 운동의 나아갈 길' 강의 시간에 필기를 하며 맘을 다해 청중하는 멤버들을 보며 나 또한 숙연해졌다.

좋은 시간은 왜 더 빨리 가는 걸까? 폐회에배 때 신국원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기학연에 처음 와서 듣게 된 '기독교세계관'이란 단어가 얼마나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동안 세상에, 세월의 폭풍 앞에서 조금씩 색을 잃어버린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 속 메시지가 날 한없이 겸손케 했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 또한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해 빛어진 결과 앞에 어느 누가 깨끗할 수 있을까? 기독교세계관을 접한 난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두려운 때가 많은 게 사실이다. 가장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자리에 겸손히 나아갈 따름이다.

2박 3일의 임원가족수련회, 그리고 1박 2일의 간사수련회는 친정을 다녀간 딸의 풍성한 두 손 같은 시간이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내게 큰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금번 수련회에 초대해주시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감사를 전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글. 임지연 친구들교회 전도사, 전 기독교학문연구소 간사



2010년 임원수련회 후기

박상은 원장 모처럼 아내와 영국에서 유학중인 아들과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가족들과 같이 성격유형을 점검하며,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이루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관의 지평이 열린 듯하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신국원 교수 참여한 회원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조성표 교수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대구에서 수련회를 갖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과 가족이 대구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믿음 부족한 나의 예상과는 달리 대구는 시원하였고, 대구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서로 간의 비전을 나눔에 따라 지난 봄 학술발표회에 이어 대구는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되었습니다. 세계관 동역자 여러분, 이젠 대구에 자주 오세요~

윤완철 교수 짧은 시간에 참 농도 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격테스트를 빙자한 내면표출 교제도 좋았는데, 홀아비로 참석하느라 룸메이트를 얻어 그게 또 잠을 줄일만한 교제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준비팀에 감사드립니다.

박신현 교수 동역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창근 교수 처음 동역회 임원수련회 참석했었는데, 자주 모이고 교류가 활발하여져서 우리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 한국 교회와 사회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실현되어 주님께 영광되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대훈 목사 목회자로서 기독교세계관 사역을 목회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김승욱 실행위원장님의 부탁을 받고 참석했는데 강의와 모임을 통해서 마음에 속에 잠재해 있는 기독교세계관 사역에 대한 열망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이윤재 교수 가족까지 초대할 모임이라 좋았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름휴가를 겸한 여행이었다.

원성욱 PAJA 사무국장 지성 사회의 대표인 교수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학문의 영역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누심이 큰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식 교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학문 활동에 열심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다 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동역의 힘은 아무래도 멤버 상호간의 친밀도에 비례하게 될 것 같으므로 힘들더라도 이런 기회를 더 자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임원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임원들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봉 교수 각 지역에 흩어진 여러 동역자들의(가족)과 함께 모여 방향을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강연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수련회 포토제닉



도착과 함께 일행들과 사진



개회예배를 인도하는 손봉호 이사장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던 DISC 성격진단테스트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던 전국 지역장 회의



편편바치에서 즐거운 물놀이



황성건 목사의 특강



대구 기독교문화 유적지 방문



대구 칸투스 중창단의 멋진 공연



아쉬운 작별의 시간